

만감류 비상품감굴 생산·유통 관리 강화

도, '감굴 생산·유통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선과장 운영자 명시 규정 등 담아... 28일까지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가 만감류 비상품감굴 생산 및 유통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도 감굴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품질검사 내 선과장 명칭 하단에 선과장

운영자를 명시해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상품감굴 품질 기준 중 기타 만감류 품질기준을 추가하며, 소과 및 대과 출하 탄력적 운영, 품질우수감굴 지정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만감류 품질기준 추가는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의 시장유통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품감굴 유

통으로 인한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10브릭스 이상 소과(2S 미만) 및 대과(2L 초과)의 출하는 기후여건 및 생산량을 감안해 가공용 감굴로 분류, 상품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굴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품질검사(검사필) 표기 내 선과장 운영자 명시는 비상품감굴의 유통적합 시 검사필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나 품질 검사원의 성명만 기재돼 있어 계절근로자에게 과

태료를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2018년 4월부터 '제주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 22조부터 26조까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삭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달 28일까지 이뤄진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인천 뱃길 다시 잇는다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재공모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째 끊긴 제주-인천 뱃길을 다시 잇기 위한 여객선 사업자 공모가 재시작됐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인천 항로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내고 오는 21일까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받고 있다.

공모는 제주항-인천항(424.9km) 또는 서귀포항-인천항(592.6km)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기한 내에 1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를 내면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네 발로 걷는 로봇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로보월드'에서 관람객들이 4족로봇 시연을 구경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인 이번 로보월드는 10개국 160여개 업체 550 부스의 역대 최대규모로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연합뉴스

제주산 활판어 가격 다시 뒷걸음질

9월 1kg짜리 전월비 8.6% ↓
수요 줄며 10월도 하락 전망

제주산 활판어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19년 10월 광어 수산물가격'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제주지역에서 출하된 광어는 1974t으로 전월(1849t)에 비해 6.8% 늘었다.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은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거래된 500g짜리 제주산 활판어 가격은 6968원으로 전월보다 6.1%, 700g짜리는 7985원으로 5.1% 하락했다. 1kg짜리와 2kg짜리는 각각 8930원과 1만2400원에 팔려 전월에 비해 각각

8.6%와 5.1%씩 낮아졌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기별로 적게는 11.7%에서 많게는 42.8%까지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던 제주산 활판어 가격은 지난 7-8월 2개월 연속 오르며 회복할 기미를 보였지만 이번엔 다시 뒷걸음질쳤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광어 가격 약세 현상이 이번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에도 활판어 가격이 전월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추석 명절 이후를 기점으로 수요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글로벌 제주인, 상공인과의 동행'

12~14일 제주상공회의소 '2019 리더십 포럼' 개최

'2019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이 '세계제주인대회'와 연계해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2~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서 '글로벌 제주인, 상공인과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2019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 및 국내 제주 출신 상공인을 비롯해 도내 기관단체 및 상공인 등 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포럼 첫날인 12일은 재외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영행사가 열리며,

13일은 개회식이 마련된다. 14일은 행사 참가자의 친선을 위한 '기업사랑 상공인 골프대회'와 '제주 고향 방문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포럼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김현철 서울대 교수가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그리고 제주'를 주제로 개회식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다. 이어 '상공인이 바라보는 제주경제, 새로운 성장'을 주제로 허창진 전 제주대 총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회가 있게 된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리더십 포럼은 국내외 제주상공인과 지역 상공인이 하나되는 국제회의의 행사로 제주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국기기자 haru@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미국과 중국 무역협약의 스몰딜 예상

G2협정 감안 증시 경계감 지속

이번주 한글날 이후 금융시장에서 주목하는 이벤트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10월과 11일 양일간에 예정돼 있다.

이미 만성적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악재성 이벤트이나 G2간의 협정만 만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관련 내용에 따른 변화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증시에서는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후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향후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관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미국과 중국간 고위급 협상에서 스몰딜 정도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스몰딜이 된다면 금융시장에서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최근 7-8월 경기 선행지표들이 2개월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 아직 제조업 분야는 취약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연방준비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완화대응을 통해서 무역협상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좀더 이끌어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면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에 금융시장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스몰딜을 합의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이적이 있지는 않아 스몰딜 합의에 따른 강제이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협상결과 따른 미연방준비위 향후 정책방향 영향 스몰딜 성사시 강제이행방안·범위 시장반응 주목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10월 15일에 예정된 2500억 달러에 대한 추가 5% 관세를 유예시켜 주는 정도에서 타결을 볼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의 타결인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및 화웨이 관련 이슈가 시장에 오르내리는 만큼 스몰딜이 성사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11월에 예정된 APEC 정상회의로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주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와 팜벨트에서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스몰딜이라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 잠정합의가 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와 스몰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스몰딜을 재선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이후 합의를 파기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기에 협상 결과에 따른 강제이행 방안을 결정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스몰딜의 범위가 농산물과 관세를 교환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적재산권과 안보에 관한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몰딜에 따른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스몰딜이 된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그 범위와 강제이행방안에 따른 금융시장에 따른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한글날 공휴일 이후 합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연희

<p>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좌읍 길림리 4,300㎡(자연녹지, 맹지)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p>회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회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매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	---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복

<p>※ 이도동 칼호빌딩층 대 192㎡ 주택 80㎡ 3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 28,842㎡ 6억 아라동기저촌내 1090㎡ 9.24억 아라동기저촌내 1090㎡ 9.24억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p>※ 연동명주마을 신실2차선도로 점 168㎡ 3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산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9억원 함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지 430㎡ 1.5억 판포 바다경관 구 자연녹지 3028㎡ 6.4억원 	<p>※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9억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원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83㎡ 6.5억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	--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장 의사

<서귀포 천주교묘지 책임 총관리>

택일, 토신제 / 축문, 제관, 제물, 중형, 소형, 차량안비 / 항상 주 야 대기
장례일제 (매장·화장·이묘) 방문 상담 환영

사무실 : ☎ 064) 732-5200, 762-5316
H · P : 010-3696-3172, 010-8661-6560

약도: 정방목포, 동문로터리, 에이스주유소, 남원, 시민장 의사, 일호광장, 도평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광양, 한국병원, 소리샘 보청기